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와 추운 겨울철에 자돈의 설사병 발생이 증가하여 더욱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돼지 설사병 발생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로부터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설사병 중 돼지유행성설사(PED)와 돼지전염성위장염(TGE)은 급성설사병으로 모든 일령의 돼지에 발병하지만 특히 1주령 미만의 젓먹이 돼지에 발병하면 대부분 죽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금년 초에 전국적으로 대유행한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상당히 많은 젓먹이 자돈이 죽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병성감정실시기관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이천·용인·안성지역에서 돼지유행성 설사병이 1160두가 발생되어 390두가 폐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내 방역관리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여 설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돼지전염성위장염(TGE)

- TGE는 주로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고 젓먹이 돼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특히 1주령 미만의 젓먹이 자돈은 거의 100% 죽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 주요증상은 우유덩어리 같은 구토물을 보이며 회백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같은 설사를 3~4일간 하고 피모가 거칠어집니다.
- 젓먹이 자돈은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발병된지 1주일 이내에 대부분 죽습니다.
- 그러나 육성돈 및 성돈은 감염되어도 약간의 식욕부진과 일과성의 설사를 보인후 회복됩니다.
- 어미돼지가 감염되면 식욕부진과 설사를 보인후 회복되지만 무유증이 나타나면 젓먹이 자돈은 젓을 못 먹게 되므로 더욱 많이 죽게 됩니다.

■ 돼지유행성설사(PED)

-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므로 돼지전염성위장염 증상과 매우 비슷하며 젓먹이 자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분만 1주령이내의 젓먹이 자돈이 감염되면 구토증상을 보이며 보온등 밑에 서로 포개

〈표1〉 돼지유행성설사병과 전염성위장염의 비교

구 분	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발생계절	연중 발생하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	겨울철에 많이 발생
전염성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발생일령	모든 일령에서 발생	모든 일령에서 발생
폐사율	포유자돈 : 매우 높음 이유자돈 : 낮음	매우 높음 거의 없음
설사형태	물같은 설사	물같은 설사
임상증상 (포유자돈)	구토 : 심함 복통으로 웅크리고 서로 모여 포개짐	매우심함 흩어져 있음
무유증	발생이 매우 높음	발생이 높음

고 뒤엎킨 상태에서 심한 설사를 하므로 온몸이 설사변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심한 수양성 설사와 복통때문에 2~3일간 젖을 빨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기력이 쇠진하여 대부분 죽게 됩니다.
- 육성돈이나 어미돼지는 구토, 식욕부진, 무기력증,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나 육성돈의 경우 가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미돼지가 감염되면 무유증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 젖먹이 자돈이 많이 죽게 됩니다.

2. 예방대책

■ 철저한 차단 방역 및 위생관리의 이행

-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돼지구입은 믿을수 있는 한·두농장으로 제

〈표2〉 예방접종 일시

구 분		1차 접종	2차 접종
유행성설사	모든	분만 5~7주전	분만 2~3주전
전염성위장염	모든	분만 5~7주전	분만 2~3주전
	자돈	복강용 : 3~10일령 1회	-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모든	분만 5~7주전	분만 2~3주전
	자돈	복강용 : 3~10일령 1회	-

※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은 혼합백신 사용 가능

한하고 구입한 돼지는 최소한 2주간 격리 사육하면서 이상이 없으면 필요한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한 후 합사시켜야 합니다.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합니다.

○ 농장내외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돈사마다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하고 출입시는 신발을 갈아 신도록 합니다.

○ 분만예정 모든 및 분만돈방의 철저한 소독과 자돈보온상의 온도관리(섭씨 30도 정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예방접종 실시

○ 임신모돈에 대한 백신접종은 계절에 관계없이 매 분만시마다 2회 접종해야 하며, 옹돈과 후보돈도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 발생시 조치사항

○ 농장내 설사병이 발생되면 즉시 시험소나 병성감정지정기관(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에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 발병 초기에 감염된 자돈은 즉시 소각, 매몰하고 돈방을 철저히 소독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분만사는 특별히 소독을 강화하고 보온에 힘쓰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분만전에 돈사바닥은 물론 유방과 관리인의 손 및 장화도 소독한 후에 분만을 유도해야 합니다.

○ 분만자돈은 반드시 소독된 수건으로 입과 몸을 닦아주고 초유를 충분히 먹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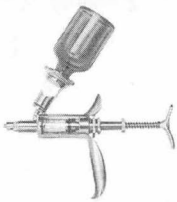
야 합니다.

- 대기사의 임신돈은 이동시 돈체소독을 철저히 하고 깨끗한 분만사에서 분만을 유도시켜야 합니다.
- 모돈은 감염시 특별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무유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돈의 유즙분비 상태를 확인하고 무유증상을 보일 때는 주기적으로 유방을 마사지해 주고 젖을 짜줌과 동시에 비유촉진제를 주사해 주면 좋습니다.
-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이 확산되면 확실한 진단을 받은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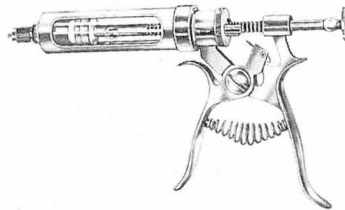
수의사와 상의하여 인공감염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공감염을 실시하면 병원체가 폭발적으로 배출되므로 이웃농장에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종식될 때까지 돼지의 이동 및 판매금지, 농장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통제, 철저한 소독조치 등 병원체가 타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질병문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43)467-1944, 병리진단과 (0343)467-1747, 바이러스과 (0343)467-1785 **養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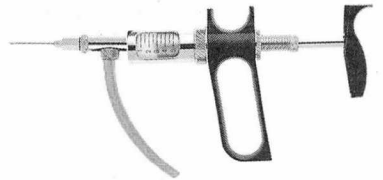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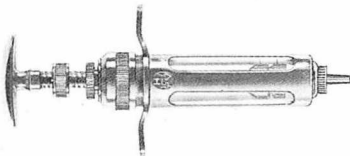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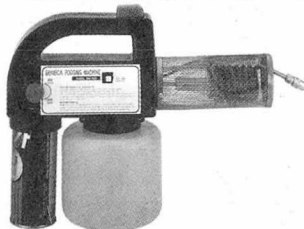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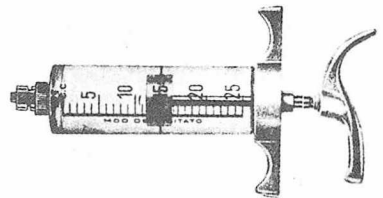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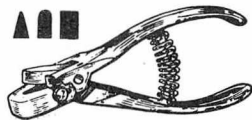
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스사용)



⑥ P.V.C 주사기(반영구) 10ml, 20ml



⑦ 적외선전구(수입품)



⑧ 이각기(귀절단)

KW 강 화 축 산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 305-2548, 374-7013

FAX : (02)308-1030